

〈제3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심사평

□성인부 심사평

내게 다가오는 이야기

한민족, 이산, 문학. 독후감 대회의 제목을 구성하는 이 세 명사는 무척 무겁고, 어렵다. 누가 한민족이고, 어디까지가 이산이며, 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 글쓰기란 또 어떤 것일까?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 2019년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수상작들은 나름의 답을 전해주는 듯 싶다.

성인 부문에 응모했던 수많은 독후감 중에 대상 한 편과 우수상 세 편, 장려상 열 편을 선정했다. 선정의 기준은 뚜렷하다. 주어진 이야기를 자신의 삶 안에 받아들여 어떻게 읽어내고, 써냈는가. 많은 응모작 중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 결국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이방의 언어를 쓴다 할 지 언정 삶의 세부를 조금씩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학의 가치일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하아련의 「이야기의 힘」이 그렇다. 하아련은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 국화』를 읽고 느꼈던 이야기의 힘을 써냈다. 대상이 된 작품 『하얀 국화』는 두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의 한 부분을 드러낸다. 하아련 역시 만주의 위안소로 끌려간 언니와 제주에 남아서 해녀로 살아갔던 동생, 두 자매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닮은 질곡의 삶을 주목한다. “숨참기와 침묵하기”라는 소재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숨을 참아야 하는 해녀와 침묵을 강요당했던 위안부는 이 “참기”라는 은유 가운데서 공동의 운명과 마주한다. 하아련은 여성 서사 가운데서 피해, 고통, 극복의 기미를 발견함으로써 한민족 이산문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읽고 제시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심수아와 김성준의 글은 모두 서경석의 『diaspora 기행』을 대상 작품으로 하고 있다. 두 수상자의 글은 철학적 인용들을 적시적소에 배치에 원작의 미려한 현학성을 자신의 글쓰기 가운데서 구현하고자 했다. 지적 갈망과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의가 문장마다 담겨있다. 이해인의 <‘겉은 노란’ 당신의 속에 대해>는 낯설다는 형용사로부터 이산의 문제를 고민한 글쓰기였다. 낯설다와 친숙하다 사이에 놓인 간극에서 겉은 노랑지만 내면은 흰, 저자의 갈등과 혼란이 담겨 있다. 작품 가운데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탐색하는 글쓰기의 방식이 주목을 끌었다.

글쓰기의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결국 좋은 글은 공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독후감은 특히 그러할 것이다. 먼 곳의 저자가 보낸 다양한 언어의 글들을 읽어내며, 그 안에서 질문과 공감의 지점들을 발견해, 자신의 글을 써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청소년부 심사평

‘좋은 감상문’은 정확하고 바른 ‘우리말 문장 쓰기’부터

‘책은 하나의 세계이며 그러니 책 읽기란 세계를 읽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이 지루한 심사평의 첫 문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 한 권의 책을 손에 들고 그 책 속의 세계를 온전하게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보는 경험은 ‘하나의 세계’를 창안하는 일이기도 하다. 독서행위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자, 이 ‘거울’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면서 보다 큰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임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증언한 것 아닌가. 더욱이 ‘이산’의 주제는 나의 ‘안’의 문제이기보다는 대체로 ‘밖’의 일인 까닭에 이산문학작품을 읽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나’의 바깥에, 그러니까 세계 속으로 ‘나’를 밀어 넣는 경험이고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자신의 작은 자아를 확장해보는 과정이 된다. ‘디지털 문명’이 대세인 이 시대에 독후감 공모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응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또 감사한 일이다. ‘문자지식(책 세계)’에 대한 몰입과 경험이 인간의 영혼을 성숙시킨다는 것은 책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진실일 것이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응모작은 총 48편이었다. 네 심사위원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최정은의 「돌아갈 수 없는 곳의 기억에 닿다」를 대상으로, 이지안의 「뒤섞인 언어들의, 하모니」 등 세 편을 우수상으로, 박수진의 「닿지 못한 연가」 등 20편을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이른바 ‘교과서적’ ‘읽기’와 ‘표현’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데, 내용에 대한 평면적 이해나 줄거리 위주의 서술은 유형적이고 상식적인 감상문 쓰기로 직결된다는 점을 이번 수상작들은 반증(反證)하고 있다 하겠다.

대상작인 최정은의 글은 정직하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청소년으로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직하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과 또 자신의 생각을 섬세한 언어(문장)로 표현해 내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주목되었다. ‘이미륵’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보고 그것으로부터 ‘이산’의 테마를 이해한 것이 좋은 감상문을 쓴 토양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지안의 글은 ‘상실’과 ‘혼돈’이라는 주제를 언어, 즉 글쓰기의 테마와 변주시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작가의 디아스포라적 글쓰기를 자신의 글쓰기에 유비하면서 스스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영채의 글은 ‘바깥’과 ‘내부’의 문제로 ‘디아스포라’를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김다희의 글은 탈북자 여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감상적인 서술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해나간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강민수의 글은 독창적인 해석도 돋보였고 글쓰기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었는데 다소 난잡한 문장을 정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응모작들이 대체로 ‘정확하고 바른 문장쓰기’라는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점이었다. 맞춤법은 물론이고 ‘주어-서술어’ 호응조차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 응모작들도 있었다. ‘-으로서’와 ‘-으로써’의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한 응모자들도 있었다. 글쓰기의 핵심은 무엇보다 바르고 정확한 문장쓰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확하고 바른 문장쓰기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도 관념도 주장도 제대로 펴 수 없으며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말’을 설득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좋은 표현과 좋은 문장 역시 정확한 문장

쓰기로부터 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감상문’의 핵심인 ‘깊이 있는 해석’ 및 ‘좋은 표현’은 ‘정확한 문장쓰기’와 등가적이다. 상식적인 읽기는 평면적인 사고를 부르고 또 그것은 다시 단순한 ‘그림일기식’ 문장을 소환한다. 유형화된 읽기, 상식적인 읽기로부터 벗어난 ‘읽기’가 좋은 감상문을 만든다. 예컨대 소설을 읽으면서 익히 알려진 주제의식에 붙들려있으면 그 소설에 대한 좋은 감상문을 쓰기 어렵다.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방식의 읽기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읽고 그것을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글쓰기의 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인을 향한 공감으로부터 깊이 있는 읽기가 시작된다. 특히 ‘이산문학 작품 읽기’가 그러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곧 ‘이산(離散)’의 문제성을 인식하는 시작점이며 이는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분들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간발의 차이로 당선권 내에 들지 못한 분들에게는 ‘다음’의 기회를 권하고 싶다.

심사위원 강유정, 고인환, 윤대석, 조영복